

“정치하는 사람들 책 많이 읽어야”

문재인 전 대통령 “대통령은 더욱 그런 자리... 책 안 읽는 정치는 나라 추락시키고 국민 삶 뒷걸음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대통령은 더욱 그런 자리”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독서’라는 책 추천 게시물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책을 읽지 않고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며 “왕조 시대에도 세종과 정조 등 큰 업적을 남긴 개혁 군주들은 모두가 독서 군주들이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에서 읽은 엘빈 토플러의 ‘제국의 몰락’에 큰 감명을 받아, 초고속 인터넷망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통신부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쌓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대통령이 책을 읽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학창 시절이 끝나면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세상은 빠르게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자신은 과거의 세계관에 멈춰 있기가 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선진국과 문화 선진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이 유독 정치 영역에서는 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시대적 세계관과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멀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종북좌파나 좌경공공이니 반국가세력이니 하며 유령 같은 망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을 안 읽는 정치는 나라를 추락시키고, 분열시키며, 국민의 삶을 뒷걸음치게 만든다”고 말했다.

/뉴스

박배엽 시인 21주기 추모식 개최

8일 김제 모악산서



박배엽 시인

‘내 나라 내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 나는 백두산 안 갑니다.’라고 통일된 나라의 백두산에 가고 싶은 절규를 시 ‘백두산 안 갑니다.(전북문화저널·1991)로 들려준 시인 박배엽(1957~2004).

박배엽 시인의 21주기 추모식이 오는 8일 오후 4시 김제 모악산(금산사에서 봉우리 쪽으로 10분)에서 열린다.

시집 한 권 남기지 않았지만, 늘 시를 쓰는 자세로 살았던 박 시인은 참된 시인의 삶을 보여준 문학인으로 꼽힌다. 남민시 동인으로, 1985년 남민시 제1집 ‘들 건너 사람들’에 작품을 발표하며 문단 활동을 시작했고, 전북민족문학인협회 사무국장 겸 전북작가회의 대변인 등을 맡으며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1980~90년대 전북권 민주화 투쟁의 구심점인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새길청년회 활동과 비전향 장기수 후원 운동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땅의 민주화와 문화운동에 헌신했으며, 1991

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구속되기도 했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14년간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과학·시집 전문책방인 ‘새날서점’을 운영했다.

전북작가회의(회장 유강희) 주최로 열리는 이날 추모식은 후배 문학인들의 박배엽 시인 시·수필 낭독과 추모 문학 작품 낭독, 지인들의 추억 나눔, 유족 인사 등으로 꾸러진다. 또한, 박두규의 시 ‘눈부신 길 하나’, 박형진의 수필 ‘우수절에 내리던 비’, 이병천의 수필 ‘박배엽, 그 이름의 진정성’, 신귀백의 영화 ‘미안해, 전해줘’, 신재순의 수필 ‘바이칼 호수로 간 금강산’, 안도현의 시 ‘환한 사무실’, 정철성의 문학 평론 ‘백두산에 가기 위하여’, 최기우의 영화평 ‘한 시대를 냉철하게 읊은 시인 박배엽’과 같이 고인의 삶과 문학을 소재로 한 30여 편의 문학 작품을 소개하며, 그중 투병 중이던 박 시인의 캐유를 빌려 단편소설 ‘오래된 임태’(2002)를 쓴 한상준 소설가의 짧은 강연이 이어진다.

추모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당일 오후 3시 금산사 주차장에 모여 40분 거리의 추모식장으로 함께 걸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작가회의 전화(063-275-2266)로 하면 된다.

/이만호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꿈나무 무대-차세대 명인·명창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7일과 8일 오후 3시부터 예음헌에서 판소리의 전승 보급 등 차세대 국악인 발굴에 중점을 두고 기획한 ‘2025 꿈나무 무대-차세대 명인·명창’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전공 학생들의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로,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총 9명의 출연자가 관객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2월 7일에는 김태경(중/수궁가), 김서우(초6/춘향가), 안희주(고2/심청가), 박보은(고2/홍보가)이 무대에 오르며, 8일에는 김태성(고1/심청가), 김준수(고1/수궁가), 임시랑(초5/홍보가), 구민정(초6/춘향가), 김상아(고1/적벽가)의 공연이 이어진다.

관람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이나 전화(063-620-2329),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에서 예약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위도띠뱃놀이 공개행사 열려

위도띠뱃놀이 보존회(회장 김우현)가 주관하는 2025년 위도띠뱃놀이 공개행사가 지난달 31일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개최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로 지정된 위도띠뱃놀이는 170여년 전부터 위도 주민들이 임금님 진상품인 칠산조기가 많이 잡히는 대리마을 앞 칠산바다에 산다는 용왕에게 만선과 행복을 작은 띠지와 오색기, 허수아비들과 어선 모양의 띠뱃을 제작해 바다에 띄우는 풍어제이다.

이날 오전 8시 위도띠뱃놀이전수교육관 앞마

당에서 풍물패의 마당굿을 시작으로 동편당산제, 원당오르기, 띠뱃과 제용 만들기가 진행됐고 오후 1시부터 마을 뒷편 산자락 주산돌기와 마을 앞 바다에서 용왕굿, 띠뱃띄우기, 대동놀이 등이 진행됐다.

위도띠뱃놀이는 지난 1978년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리마을 당제의 한 과정인 ‘띠뱃 보내기’로 출전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한벽문화관, 전시공간 지원사업·상반기 정기대관 모집

전주한벽문화관은 오는 7일까지 전시공간 지원사업 및 상반기 한벽전시실 정기대관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인 전시공간 지원사업은 전시 공간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회화, 조각, 설치 등 시각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총 4팀(개인 또는 단체)을 선정한다.

자격 기준은 만 39세 이하의 개인 또는 만 39

세 이하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장애 예술인을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인 또는 장애 예술인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팀에 한해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한벽전시실 상반기 정기대관은 지역에서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면서 작품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상반기 대관 일정은 3월부터 7월이다. 다만 4월은 제외된다.

한벽전시실 면적은 193.25㎡(58.5평)이며, 공조기, 전기 사용료,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는 무료다.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가 및 단체는 전주문화재단, 전주한벽문화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전자우편(email@jwr.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철민 관장은 “전주한벽문화관은 다채로운 문화가 생동하는 공간”이라며 “특히 전시지원사업과 정기대관은 지역 시각예술 활동 지속과 활성을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 예술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